

# Aramco, S-Oil 지분 매각 않는다!

블룸버그 통신에 이메일로 답변 ... 롯데그룹에 지분 10% 매각설 부인

사우디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(Aramco)는 12월7일 자신들이 보유중인 S-Oil 지분 35% 중 일부를 매각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.

무스타파 잘랄리 아람코 부사장은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e-메일 답변을 통해 “사우디 아람코는 S-Oil의 어떤 지분도 매각하지 않을 방침”이라고 밝혔다.

앞서 한국의 일부 언론은 S-Oil이 정유공장 부지를 받는 조건으로 아람코 소유의 지분 10%를 롯데그룹에 매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12월3일 보도한 바 있다.

원유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를 아시아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사우디 아람코는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정유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4/12/09>